

01월 0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01월 0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기업실적에 발목 [다우: 8,952.89pt (-0.91%)]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나흘만에 약세로 돌아섰음.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주와 통신주에 대한 부정적인 실적전망이 영향을 미쳤음.
12월 자동차 판매 부진..전망치보다는 좋아	미국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GM의 2008년 판매실적이 49년래 최악을 기록했음. 미국 2위 메이커인 포드 역시 작년 실적이 47년래 가장 나쁜 것으로 드러났음. GM은 이날 12월 미국 자동차 판매실적이 22만3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전년동기(31만 9,837대)에 비해 31%나 급감한 수치임. 이에 따라 GM의 2008년 연간 미국 판매량도 전년에 비해 22.9% 감소한 298만대에 그쳤음. 이는 1959년(298만대) 이후 49년래 최악의 실적임. 포드도 12월 판매량이 13만 9,067대에 그쳐 전년동기(20만 5,685대)에 비해 32.4%나 감소했다고 밝혔음. 2008년 연간 실적도 199만대에 그쳐 전년(251만대)에 비해 20.7%나 줄었음. 포드의 2008년 연간 실적은 47년래 최저수준임.
어닝 시즌 본격화 앞두고 부진한 실적전망이 부담	오는 12일 알코아(alcoa)를 시작으로 월가가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날 뉴욕증시에선 벌써부터 기업들의 실적에 관심이 모아졌음. 도이치뱅크는 미 은행들의 대출손실이 대공황기인 1934년 기록한 3.4%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했고, JP모간체이스는 경우엔 CNBC 진행지가 익명의 애널리스트를 인용, 4분기 손실을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악재로 작용해 7%대의 급락세를 보였음.
스티브 잡스 "건강 이상 없다"..애플 강세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가 최근 수개월간 불거졌던 건강 이상설을 직접 해명하고 나선데 힘입어 애플의 주가가 4%대의 강세로 마감했음. 스티브 잡스는 이날 애플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몸무게가 줄었다"며 "이같은 영양상의 문제(nutritional problem)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월 건설지출 양호	미 상무부는 11월 건설지출이 전월대비 0.6%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같은 감소폭은 브리핑닷컴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1.2%)와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월가의 컨센서스(-1.4%)에 비해 크게 적은 수치임.
국제유가 반등 [WTI: \$48.81 (+ \$2.47)]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지상전을 전개한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음.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유가(WTI)는 배럴당 2.47달러(5.3%) 상승한 48.81달러를 기록했다.

제목	주요 내용
中, 車 부양책 내놓는다	중국이 수개월 내에 자동차 업체 지원책을 발표할 전망. 5일 로이터 통신은 현지 상하이증권보를 인용,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올해 자동차업체들의 이익 10%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자동차 구입세 인하와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책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보도.
몸사리는 中 국부펀드 '현금이 최고'	글로벌 경제 악화 영향으로 중국의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도 극도로 몸을 사림. CIC의 장홍리 부회장은 국가 소유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개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현재는 현금이 최고"라며 "(이 시점에서) 가능하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일본은행 '엔고 저지' 시장 개입 초읽기	한동안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던 일본은행이 '엔고(高) 저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힘.
英 금융감독청, 공매도 강화조치 6월말로 연장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5일(현지시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 및 통보 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할 일 다하고 있다"는 상하이차, 이젠 산은 차례?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차에 대한 긴급자금 수혈은 물론 CKD(자동차부품 포장 수출) 물량을 추가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관련, 상하이차가 쌍용차에 대한 지원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채권단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쌍용차에 대한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음. 상하이차의 철수 가능성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상하이차의 이번 조치는 일단 쌍용차로서는 산소호흡기를 만난 셈이지만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기는 아직 불확실하며, 이번 상하이차의 조치는 쌍용차 회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
유화업계 "뭉치고·쪼개고..체질개선 몸부림"	석유화학업계가 불황 터널을 헤쳐나기 위해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으며 실속이 없는 사업은 접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중복되는 사업은 한데 묶는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이 한창임. 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동양제철화학, SK에너지, 호남석유화학 등은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거나 인수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